

2023년 7월 23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16 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7 월]



복음화 지향 : 성체성사의 삶

가톨릭 신자들이, 인간관계를 깊이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모든 형제자매와의 만남을 열어주는 성체성사의 거행을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합니다. 말씀과 생명의 빵 안에 계시는 성자를 알아 뵙고, 그분을 참된 예언자요 목자로 모시어, 영원한 기쁨의 샘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2,13.16-19
 <하느님께서서는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화답송 시편 86(85),5-6.9-10.15-16ㄱ (◎ 5ㄱ)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26-27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24-43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영성체송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영성체 후 묵상
 세상의 밭에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자라지만, 수확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 같은 존재, 밀가루를 온통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종말에 의인들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허규 베네딕토 신부 ♣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vs 가라지를 뿌린 원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의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해설은 비유가 전하는 의미를 거의 모두 담고 있습니다. 비유는 이따금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오늘 복음은 다르게 풀이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어색할 만큼 가라지의 비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비유에서 하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과 비교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하늘 나라의 신비는 그분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밭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가 밭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찾아냅니다. 수확할 때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분명히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겠지만 지금이 그때는 아닙니다.

비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나라의 특성을 말하여 줍니다. 하늘 나라는 무엇보다 인내와 사랑과 자비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회개를 위한 시간이고, 회개와 자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그분의 자비는 우리에게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이 시간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과 이웃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마태 13,30



Let them grow together until harvest. Mt 13,30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마태 13.43)

Then the righteous will shine like the sun in the kingdom of their Father.

| 연중 제 16 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이탈리아 산타 마리아 수도원 소장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마태 13,32).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제 3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전대사 안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정하신 제 3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2023 년 7 월 23 일)을 맞이하여, 교황청 내사원에서는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복돋우려는 목적에서 전대사를 수여하였습니다.

전대사 받는 조건: '제 3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2023 년 7 월 23 일)'에

1)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2) **영성체를 하고**

3) **교황님의 7 월 기도 지향인 '성체성사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이 자신이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아래 내용 중 하나를 실천할 경우 모든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미사에 참여하기
 - ②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을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 ※ 연로한 병자와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통상 조건(1~3)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이날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 성하의 말씀과 교구의 관련 여러 예식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고난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3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문 및 전례자료

[기도문 전문]

<https://tinyurl.com/2rjw8s7w>

[전례자료]

<https://tinyurl.com/5t3wfxud>

엽서 보내기

우리 공동체는

제 3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과 대부모, 은인들에게 엽서 보내기를 진행합니다.

성전 입구에 마련된 엽서에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제출하시면, 공동체 차원에서 일괄 발송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분들은 정성스럽게 작성하신 엽서를

7 월 23 일(주일)까지

교무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제 3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미칩니다**" (루카 1,50) 제 3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주제인 이 말씀을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젊은 마리아와 나이 든 친척 엘리사벳 사이의 복된 만남을 되새겨보게 해주는 예시라고 풀이하시면서 하느님께서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한 것처럼 젊은이들이 노인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노인들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교황님께서서는 올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 세계청년대회와 가까운 날에 거행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젊은이와 노인을 잇는 유대에 관하여 성찰하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모든 세대를 포용하면 연결시키며 우리 존재보다 더 크지만, 우리 각자를 포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매 순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화문] <https://www.cbck.or.kr/Notice/20230314?gb=K1200>

2024 년 캔버라 한인성당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순례성지 및 시기] 이스라엘과 요르단, 2024 년 9 월 중 10 박 11 일
[주관사] 가톨릭여행사 (프로그램 소개링크: <https://url.kr/sh24v3>)
[참가비] 1 인당 525 만원 (※ 환율과 예약시점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신청기간] 2023 년 7 월 16 일(주일) ~ 2023 년 9 월 30 일(토)
[접수 및 문의] 주정자 루치아 (0410 106 633)



캔버라 한인성당 공동체 조은데이(JOY) 초대

신앙생활 속에서 더 많이 내적 기쁨(Joy)을 얻고, 더 크게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에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23 년 7 월 30 일 주일미사 후 오라나 센터
[조은데이 사전 설문지 양식 링크] <https://forms.gle/xqEQVtxsZQS2vZnu6>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교리기간] 2023 년 9 월경 시작
[세례식] 2024 년 4 월 9 일(부활절)
[접수 및 문의] 주정자 루치아 (0410 106 633)



| 연중 제 16 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⑧

자원봉사나 생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휴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자료 제공 -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⑥

EM으로 만든 비누 사용해보기
(자료 제공 -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의 구약 종주 11강 사무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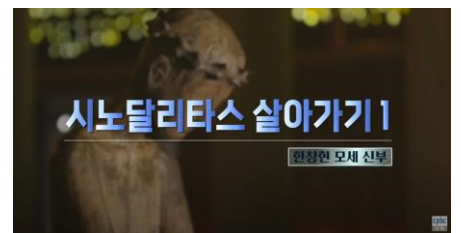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왕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44강] 질투는 나의 힘 - 다윗이야기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사무엘기 3부 | 1사무 16-21장

cpbcTV 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경성의 시노달리타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가톨릭 돌레 특강#62
한창현 모세 신부
성바오로수도회 양성위원장

□ 미사 참례자수

7월 9일	성인 42 아이 14	7월 16일	성인 50 아이 25
-------	-------------	--------	-------------

□ 우리들의 정성 (7월 15일(토)~21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요한	김정수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전인철	조성희	주정자	교무금 \$580 (12 가정) / 봉헌금 \$235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7월 23일 연중 제 16 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7월 30일 연중 제 17 주일
독서	허준 안토니오, 김미현 보나	김미현 보나, 이민정 글라라
예물봉헌	마태오반	사목회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23일) 마태오반 → (30일) 사목회 → (8월 6일) 요한반 → (8월 13일) 루카반

○ 미사 후 친교 (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8월 6일-식사) 마태오반 → (20일-간식) 마태오반

※ 매월 첫째주 식사나눔시 청년들을 위한 김치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 미사성가 안내 (가사/악보 보기, 듣기, 다운로드 - 링크 클릭)

	입당	예물	영성체	파견
7월 23일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210 나의 생명 드리니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31 이 크신 모든 은혜
7월 30일	51 주 나의 목자되시니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156 한 말씀만 하소서	6 찬미노래 부르며

♥ 정수민 비르짚다(마르코반, 23일) 자매님과 손재호 야고보(요한반, 25일) 형제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립니다.

☞ 교무금 납부 확인서 배포(7월 23일부터) 및 공동체 현황 및 재정보고(7월 23일) (문의: 이지영 아녜스)